

제 3 회

부산무용제

● 일시/1994.7.3~7.하오7시(1일2회공연)

● 장소/부산문화회관 대강당

1994



● 주 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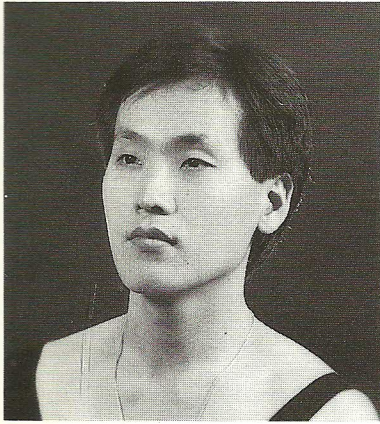
부산직할시

● 주 관 ●

한국무용협회 부산지회

● 후 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부산직할시교육청 · 예총부산지회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일보사 · 국제신문사 · 부산매일신문사 · KBS부산방송본부 · MBC부산문화방송 · 기독교부산방송



- 안무: 소 홍 섭
- 연출: 이 성 훈
- 출연: • 소홍섭
• 김종남
• 김희선
• 김경호
• 유창국
• 최인호
• 박소진
• 손선미
• 여미선
• 최은정
• 황지현
• 신세원
• 남대우
• 박재홍

● 작품내용

소리(唱)에 맺힌 아버지의 열정, 적의 한을 간직한채 오라비는 떠나버리고 소리꾼 딸은 눈 멀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과 오랜 방황끝에 모든 것이 용서되고 승화된 원한이 날아가는 모습을 한 특이한 지세와 더불어 관심을 고조시키며 날개 짓하는 비상학.

오라비의 그리움과 허무감을 느끼고 우연의 만남 속에 그리움의 한이 되어간다.

● 안무의도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그의 삶을 지탱하고 인간으로서 총체성을 유지해 가는 양식이 있다.

소리(唱)꾼 또한 한이 한을 갖게 했고 현실적 갈등과 방황 인간의 한을 자연을 통해 수용, 이것을 긍정적 승화의 통로로써 비상학을 표현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고통, 허무감을 표현하고자 한다.



- 안무 : 김미숙(부산여자전문대학교수)
- 안무보 : 홍은실 / 윤주련
- 대본 : 김현숙
- 음악 : 박철홍(부산예술대학교수)
- 연습지도 : 이해경 / 곽춘화
- 무대미술 : 정영진(부산여자전문대학교수)
- 무대의상 : 김영곤
- 무대감독 : 권택삼
- 조명 : 신상준
- 음향 : 정정식
- 소품 : 황지선/김지은
- 특별출연 : 신병철(동아대학교 무용과)
 - 김태기 "
 - 김기표 "
 - 김세한 "
- 출연 :

• 홍은실	• 이연숙
• 채수남	• 정은영
• 김효선	• 한정숙
• 김지형	• 김미영
• 이해경	• 김인숙
• 김순현	• 이선경
• 조지순	• 이윤경
• 윤주련	• 이현주
• 곽춘화	• 임행너
• 김민정	• 위승희
• 신창희	• 유선영
• 엄진화	• 김경량
• 유주희	• 윤지희
• 윤미영	• 전은희
• 윤선주	

● 작품내용 및 안무의도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맺고 푸는 삶의 구비마다 놀이를 함께 했다. 일과 놀이가 어우러 졌고 신앙의 공간에도 놀이가 행해졌으며 제의에서조차 놀이는 빠지는 법이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노는 마음 즉, 놀이정신이다.

옛모습 그대로의 놀이를 찾아 답습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 놀이의 저류에 흐르는 정신의 맥을 찾아 오늘날 삭막한 우리의 정서를 새로운 방법으로 복원하려 하는 노력이다.

싸씨래기에서는 죽음의 제의인 장례를 통해서 놀이 정신을 찾아 보려고 했다.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죽음과 놀이가 실제로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이 우리네 장례의 모습이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산자들의 곡소리, 모여앉은 조문객들의 수런거림, 또 한편에서는 싸씨래기 놀이가 펼쳐지고, 부엌에서는 산사람을 위한 훈기가 피어오르고... 이렇게, 장례의 공간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 속에서 슬픔과 기쁨이 엉킨 우리 고유의 서정이 있고, 함께 모여 제의를 치뤄내는 두레정신, 상부상조의 마음이 있다. 먼 길을 떠나는 자의 의식이 혼자만의 통과의례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예비된 일임을 보여준다. 장례가 죽음의 엄숙한 통과의례 이면서 풍물을 곁들인 놀이가 펼쳐지는 삶의 공간이라는 점은 역설적이다. 그러나 일과 놀이의 일체성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장마저도 삶의 에너기로 승화해 낸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자 정체성이 아닐까? 장례라는 제의의 비극성이 아니라 그것을 치뤄내는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그려 보고자 한다.

싸씨래기와 같은 형식의 놀이굿은 전라도의 '다시래기' 와 함께 우리나라 전역에서 행해졌다. 우리의 놀이와 굿은 절망적 상황을 딛고 현실의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쇠심줄 같은 힘이 담겨있다. 싸씨래기에서는 이러한 놀이가 가진 역동성을 장례라는 제의를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1장/바람속으로 떠나는 그대 · 2장/망자를 위한 노래
3장/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자리 · 4장/하나되는 우리들



- 안무 : 강미희
- 대본·연출 : 강미희
- 무대미술 : 이정형
- 음악 : 정기원
- 출연 :
 - 강미희
 - 조미옥
 - 강미라
 - 김현미
 - 허선희
 - 강희정
 - 김수진
 - 정은정
 - 왕숙진
 - 이세진
 - 윤유정
 - 문라옥
 - 김주용
 - 김훈석
 - 이동용

● 작품내용 및 안무의도

아직껏 없는 가능성의 허무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자신을 잃어 본적 없이
존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고독속에서 그 무언가를 찾을 때
다시 그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살아 있던 사람들도 죽었고
살아 있는 우리도 죽어간다.
존재에 대항하고 존재를 부정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의 자유를
꺼지지 않는 의식으로
나의 황무지(荒蕪地)에서 찾아본다.



- 안무·대본 : 윤보경
- 예술감독 : 최은희
- 음악 : 신혜영
- 의상 : 김영곤
- 출연 :
 - 신은주
 - 하연화
 - 황지영
 - 손미란
 - 홍이경
 - 장윤정
 - 전현철
 - 천병일
 - 김종덕
 - 김정원
 - 김문경
 - 박재현
 - 이경희
 - 이지영
 - 이영미
 - 정영심
 - 한영화
 - 한수정
 - 윤보경

● 작품내용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사라도령은 서천 꽃밭으로 길을 떠나는 중 너무나 먼 길이라 만삭이 된 아내를 남의 집 종으로 팔고 갈 수밖에 없는 형국에 이르면서 생이별을 하게 된다. 그 아내는 가련하고 혹독한 15년의 세월을 지혜롭게 견뎌내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떠난 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의 극적인 도움으로 그 한스러운 세월을 보상 받는 재생의 삶의 형태를 이루면서, 먼 서천 꽃밭의 꽃감관 자리를 맡으며 꿈을, 보다 이상적인 꿈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주도 신화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재생설화의 한 경우이다. 여기서는 서천 꽃밭에 가서 환생시키는 꽃을 얻어다 뿌려서 재생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 조상들은 이처럼 이 세상 어딘가에는 우리 인간의 꿈을 이루어주는 신비롭고 신령스러운 세계가 있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면서, 질곡한 삶의 승화된 정서로 대변되는 한과 어우러져 보다 고무적이고 고양한 형태의 삶의 양상으로 끌어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 안무의도

언제 였던가, 봄의 강가에 서서 꽃 송이들이 어디론가 떠 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 본적이 있다. 신비로웠다. 그런 기억이 있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도 꽃들이, 산자와 죽은 자에게도 꽃들이, 현실과 이상에도 꽃들이, 절망과 소망에도 꽃들이... 아아, 꽃들이...그래서 우리들은 꽃을 예사롭게 여길 수 없는지도. 꽃을 훌뿌리면 그 모든 것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꽃을 뿌리면 그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고, 그런 기억에서 끄집어낸 생각이 하나 있었다.

1 장 - 『길 떠나고 - 별리』

2 장 - 『세월의 굴레』

3 장 - 『죽음』

4 장 - 『재생 - 꽃감관』

※꽃감관 : 서천꽃밭을 담당하는 관리직.
이상향을 상징함.



- 안무: 임 연 희(Im Yun-Hee)
- 음악: Spirit of Tow hearts 외
- 의상: 이 혜 빈
- 출연: • 김하얀
• 이현주
• 정기정
• 허윤정
• 최정은
• 고수현
• 함수경

● 작품내용 및 안무의도

인간의 내면엔 술한 욕구와 미흡한 충족에 대한 회의, 갈등 등의 여러가지 요소들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벗어나고픈 짓눌림에 사로 잡힌다. 가끔씩 난 이려고 싶어진다.

난 하나의 내가 아니라 키가 크든 작든간에, 뚱뚱하든 마르든, 또는 잘생기든 못생기든지 한 덩어리이고 싶다.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어서 새로운 경험과 신비로운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또한 난 거울속의 나 이길 거부한다.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느껴지는 나이길 기대하고, 미흡하지만 나의 삶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한다.

누구나 한번 정도는 상상속의 자신을 꿈꾸어 본다고 생각 한다. 그 속엔 무수히 많은 내가 있고, 그래서 현실의 부담을 덜어 가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나를 돌이켜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작품내용

인간의 보다 높은 행복과 최고의 희망 가운데 감각적 쾌락을 남녀의 서로에 대한 존재 확인 과정을 통해 그리면서, 그들 서로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이방인'(제1장)이다. 무감각과 냉혹한 가슴을 가진 인간의 스스로에 대한 고문과 잔인함을 그리면서 연소되어 소멸하는 인간을 '어둠'(제2장)에서 그렸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참고 만족하는 자의 비이기심과 자기 향락에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인간 본연의 자리로의 돌아감을 그리고 있다.

- 안무·대본 : 장정윤
- 예술감독 : 장정윤
- 음악 : Eddie Jobson 외
- 의상 : 배 용
- 출연 :
 - 염창홍
 - 서영주
 - 김현아
 - 정보미
 - 박경숙
 - 이태경
 - 정보경
 - 주상혁
 - 김은정
 - 김기원
 - 이 현
 - 조숙녀
 - 김부영
 - 도경미
 - 정은심
 - 이장숙
 - 김민정
 - 김혜정
 - 정현주
 - 장정윤

● 안무의도

'감각적 쾌락'과 '지배욕' 그리고 '이기심'에 의한 인간의 세가지 악(惡)을 테마로 하여, 인간적이고도 감각적인, 나약한 동요와 무자비한 흔들림을 표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안무는, 인간을 진정한 자비와 저마다의 자리로 돌려보내면서, 없어져야 할 악(惡)과 남겨져야 할 선(善)의 체험을 통한 교도를 그 의도로 하고 있다.



- 안무 : Michel Fokine
- 예술감독 : 김정순
- 재구성 : 양정희
- 음악 : Frédéric Chopin
- 출연 :
 - 박현주
 - 조영돌
 - 배향
 - 이연순
 - 김유경
 - 문혜연
 - 박의현
 - 김미나
 - 박진숙
 - 민보혜
 - 김수희
 - 문선화
 - 이미정
 - 임현주
 - 박은혜
 - 최소영
 - 박진아
 - 송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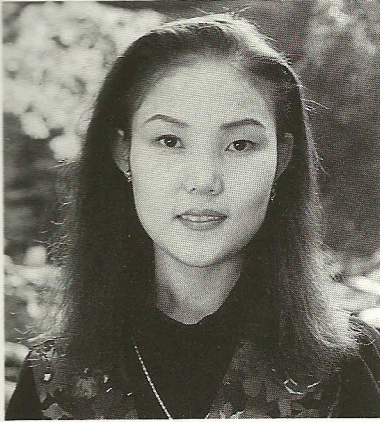
● 작품내용 및 안무의도

발레작품 《레 실피드》는 발레의 낭만주의를 열어준 너무도 유명한 발레 《라 실피드》에서 그 명칭을 따온 것이다. 이 작품은 아마도 전(全) 시대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발레작품 가운데 하나이며 「낭만주의」시대란 발레의 신기원을 열어 주었을 뿐 아니라 발레리나를 불멸의 존재로 높이 끌어 올려 준 것으로도 발레사에 기록될 획기적인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수없이 많은 세계의 중요한 발레 컴퍼니들이 끊임없이 공연해오고 있었으며 우리 발레 연구회 역시 시도해 보려 한다.

이 작품은 《라 실피드》의 배경을 지닌 《레 실피드》는 줄거리가 없는 단막물로서 쇼팽의 짧은 피아노 소품들로 구성된 음악에 따라 댄서들이 춤추는 것으로 되어있다.

달빛에 비추어진 무대 장치에다 녹아날듯 부드럽고 몽환적이며 천상적인 환상의 분위기가 특징적이다.



● 작품내용 및 안무의도

첨단 과학이 고도로 발전된 산업화시대에 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은 능동적이기 보다는 기계라는 매체를 통하여 기계에 의존해서 이젠 기계화의 종속화로 인간의 삶이 영위되어가고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생활의 인간 노동력을 최소화 하기위한 수단으로 기계를 활용하던 단순성이 역으로 기계가 인간들을 점차 넷트(N), 볼트(V)의 부품으로 제품화하여 인간을 조직적이고, 균일화 상품화의 기성품으로 제작시켜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안무·대본 : 이혜영
- 대표 : 하선주
- 예술감독 : 이영희
- 음악 : 김영곤
- 의상 : 이수동
- 무대미술 : 이혜영
- 출연 :
 - 하선주 (새알춤희 대표)
 - 신세영 (새알춤희 정단원)
 - 서혜진
 - 이경숙
 - 최윤희
 - 서시영 (경성대 재학생)
 - 양운선
 - 윤성화
 - 이동용
 - 서우정
 - 황용혁
 - 김남식



● 작품내용

청단 흉단 초단에다
 풍약 비약 초약하고
 송동월에 오광이면
 육백나고 새판인데
 흑사리 홍사리 오동 쪽대기
 할일없이 덩굴 덩굴
 옛다! 파토구나 찬물먹고 마음 돌려라

- 안무: 김 은 경
- 음향: 도 인 봉
- 의상: 김 성 만
- 출연:
 - 김옥경
 - 박미라
 - 양승희
 - 권윤희
 - 김현경
 - 김현옥
 - 신미영
 - 여쌍희
 - 유선이
 - 이주영
 - 김은향
 - 권녹화
 - 김지혜
 - 박소영
 - 안성희
 - 양은혜
 - 윤혜영
 - 이윤선
 - 이윤희
 - 이필정
 - 이현경
 - 정필재
 - 조혜리
 - 황정례
 - 황진선

● 안무의도

우리의 화투놀이를 소재로 현대의 계층간의 갈등적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가치관에서 오는 대립 구조 등을 화투놀이의 내용을 통해 재조명해 보는데 focus를 맞추었다. 소외받는 계층 즉 흑사리 쪽대기와 청단, 흉단 등의 파벌, 그리고 지배계층을 상징하는 5광들의 오만함 등을 해학적으로 점목시켜 패러독스의 미학으로 풀어가면서 우리춤이 갖는 절제와 신명을 창작이라는 실험 형식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작품내용

구운몽은 서포 김만중이 노모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지은 소설이란 말이 있다. 무대를 충곡으로 정하여 놓고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 팔선녀와 희룡이 도화선이 되어 인간세계로 환생하는 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너무 성하면 쇠하고 너무 가혹하면 넘치기 쉬운법, 부와 권력과 사랑이 결코 인간의 생사의 문제를 해결치 못하며, 전부를 소유했으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상함을 면치 못하니 살아있는 것은 순간이다.

- 안무 : 김진홍
- 무대감독 : 권택삼
- 무대미술 : 이호근
- 음악 : 박철홍
- 조명 : 신상훈
- 음향 : 정정식
- 의상 : 이수동
- 기획 : 송광진
- 출연 :
 - 김진홍
 - 박선영
 - 서숙자
 - 송현주
 - 장래훈
 - 허복희
 - 홍기태
 - 김미나
 - 이송희
 - 문선애
 - 서순덕
 - 박정숙
 - 이윤혜
 - 원유화
 - 최찬열
 - 최순원
 - 이성원
 - 심재숙
 - 서현미
 - 황보영
 - 장은미
 - 김주영
 - 강휘지
 - 이지향
 - 김동숙
 - 성동헌
 - 오숙례
 - 류민관
 - 이현숙
 - 공민선
 - 서정숙
 - 권봉정
 - 정진희
 - 김미리
 - 김향숙
 - 김효선
 - 강미향
 - 이정인
 - 황선희
 - 박미영
 - 장해정
 - 김병주
 - 박미령
 - 이정식
 - 임은아
 - 최병재 (객원)
 - 전유경